

# 미국의 한인 2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빈곤\*

이현송\*\*

## | 목 차 |

I. 서론	IV. 분석 결과
II. 선행 연구	V. 요약 및 결론
III. 분석의 틀	

##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2010-14년 미국 지역사회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자료를 사용하여 한인 2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빈곤을 검토하였다. 한인 2세는 백인보다 빈곤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한인 2세 빈곤자는 중국계 2세나 백인과 달리 여성이 많으며, 55세 이상 고령층에서 빈곤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한인 2세 빈곤자의 학력은 백인보다 훨씬 높으며 중국계 2세보다도 더 높다.

빈곤의 가능성에 대해 로짓 회귀분석을 한 결과, 한인 2세는 중국계 2세는 물론 백인보다 빈곤의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빈곤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효과에서 한인 2세는 중국계 2세는 물론 백인보다 현저히 약하다. 한인 2세의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한인 2세가 노동시장에서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모범적 소수자'라는 칭호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에 미치지 못하는 한인들은 같은 조건의 백인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다.

▪ 주제어: 미국 한인, 아시아인 아메리칸, 이민자, 빈곤, 에스닉 타운

\* 본 연구는 2016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부 교수.

## I. 서론

미국에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이민자는 주류 백인보다 더 높은 사회경제적 성취를 이루었다(Sakamoto & Xie 2006). 미국 사회는 이들을 ‘모범적인 소수자’라고 칭한다. 그러나 아시아인의 평균적으로 높은 성취의 이면에는 큰 격차와 빈곤이 도사리고 있다. 주류 백인과 비교하였을 때 아시아계 민족 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동일 민족 집단 내에서도 부자와 빈자 사이의 격차가 크며 가난한 사람이 많다. 정부의 센서스 통계로 볼 때 아시아계 미국인 중 가난한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아시아계의 사회경제적 사정에 대한 관심은 거의 대부분 그들의 높은 성취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이다.

근래까지 아시아계의 대부분은 이민 1세대였으므로, 그들의 사회경제적 성취는 대체로 이민자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졌다. 언어 장벽과 편견, 인종 차별에도 불구하고 높은 교육 수준과 근면성이 아시아계 이민자의 높은 사회경제적 성취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아시아계 이민자는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성공한 아시아계 이민자는 교육 수준이 높은 반면, 가난하게 사는 이민자는 교육 수준이 낮거나 연령이 높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 중 가난한 사람이 많은 반면, 인도와 동아시아 출신의 이민자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다면 ‘그들의 후손인 아시아계 이민자 2세는 사정이 어떤가?’ 하는 의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대부분의 아시아계 이민자는 1965년 이민의 문호가 개방된 후에 들어왔다. 2000년대에 들어 다수의 아시아계 2세가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연령에 진입하였다. 근래에 아시아계 2세의 사회경제적 성취를 주류 백인과 비교하는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근래의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계 2세는 주류 백인보다 사회경제적 성취가 높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라는 이유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경험하지 않는다(Kim & Sakamoto 2010; Kim & Zhao 2014). 즉 아시아계 2세 중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한 주류 백인 사회에 동화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불과 한 세

대 만에 이민자에 대한 편견과 인종 차별을 극복하고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된 것이다. 이는 과거에 아일랜드인, 이탈리아인, 유대인 등 백인 소수자들이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되는 데 몇 세대가 걸렸던 것과 대조된다.

‘동화’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류 사회 사람들과 유사하게 대우받는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에서 유사해지는 부분도 포함한다. 아시아계 미국인이 긍정적 면에서 주류 사회 사람들과 유사해졌다고 하여, 부정적 측면에서도 그들과 유사하리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 부정적 측면에서는 주류 사회를 닮지 않고, 긍정적 측면에서만 주류 사회와 유사해진다면 좋겠지만, 실제 사정이 어떠한지는 경험적으로 검증해 봐야 한다. 아시아계 2세의 불평등과 빈곤은 어떠한가? 아시아계 이민자 1세대와 마찬가지로 주류 백인보다 더 불평등한가?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가 혹은 더 적은가? 같은 교육 수준에서 더 가난한가 혹은 덜 가난한가? 그들이 가난한 이유는 주류 백인과 같은가 혹은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거의 답하지 못한다. 이는 아시아계 2세 중 성인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아시아계 2세 중 성인에 도달한 사람이 상당한 규모이므로 이러한 의문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아시아계 2세의 불평등과 빈곤에 관해 탐색적으로 검토한다. 아시아계 2세, 특히 한인 2세의 사회경제적 성취와 빈곤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적어 밝혀진 사실이 많지 않기에 본 연구는 탐색적인 성격을 띤다. 아시아계 민족 사이의 다양성이 크므로, 여기에서는 모든 민족 집단을 검토하기보다 한국계 미국인에 초점을 맞춘다.

한인 2세의 사회경제적 성취와 빈곤에 관해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는 비교적 접근을 한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전반적인 사정 속에서 한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한인 1세와 2세를 대비하고, 한인 2세와 유사한 중국계 2세를 비교하고, 한인 2세와 주류 백인을 비교함으로써 한인 2세의 사정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 II. 선행 연구

아시아계 미국인은 대다수가 1965년 이민법 개정으로 비유럽인에게 문호가 개방된 이후에 들어온 이민자와 그의 자손으로서, 이민 1세대가 다수를 차지한다. 아시아계는 교육, 소득, 직업 지위 모두에서 주류 백인보다 평균적으로 높다. 아시아계가 이렇게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성취한 이유로는 그들이 미국에 건너오기 전부터 교육 수준이 높았으며 근면 성실을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이 지적된다. 그러나 모든 아시아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인도, 필리핀 및 동아시아에서 온 이민자와 그의 후손은 백인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나, 베트남과 기타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은 백인보다 평균적으로 지위가 낮다. 소위 ‘모범적인 소수자’라는 칭호는 인도와 동아시아 출신에게 주로 해당한다(Sakamoto & Xie 2006).

아시아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지만, 그들이 미국 주류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미국의 인종 질서에서 아시아인은 백인보다 낮은 지위를 차지하며, 편견과 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아시아계는 주류 백인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만 그들과 대등한 지위에 도달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아시아계는 주류 백인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고되게 일하며,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학업능력 시험 성적을 획득해야 한다. 이민을 오기 이전에 자신의 교육 수준과 사회적 배경에 걸맞은 일자리를 미국의 직장에서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시아계 이민자 중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아시아계 이민자 1세와 그의 후손은 상이한 경험을 한다. 이민 1세는 언어 장벽과 미국의 관습에 서툰기 때문에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큰 불이익을 경험한다. 미국 사회는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불이익을 부과한다.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체재한 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다. 그들이 이민 오기 전 모국에서 받은 교육은 미국에서 받은 교육보다 노동시장에서 낮게 가치를 인정받는다(Zeng & Xie 2004; Sakamoto et al. 2009). 반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이민 2세는 그들의 부모 세대와 같은 불이익을 경험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언어 장벽이 없으며,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으므로 그들의 학교 교육에 대해 주류 백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아시아계 2세가 노동시장에서 주류 백인과 동등하게 취급되는가 하는 질문, 즉 아시아계 2세는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는가 여부에 대해 과거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했다(Hirschman & Wong 1984). 민권운동 이전에 아시아계 미국인은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계 미국인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시장은 그들의 교육적 성취를 주류 백인의 것과 대등하게 대우한다(Goyette & Xie 1999; Zeng & Xie 2004; Sakamoto & Xie 2006; Kim & Sakamoto 2010; Kim & Zhao 2014).

특히 김과 사카모토는 대학 졸업자에 대해 학력 수준만이 아니라 대학에서의 전공과 대학의 평판도 까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비교하였다(Kim & Sakamoto 2010). 유사한 평판도의 대학에서 유사한 전공을 졸업한 경우에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계와 주류 백인 간 남성의 임금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계는 물론,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에 미국에 건너온 1.5세대의 경우에도 백인과 차이가 없었다.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더 분명한데,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계는 교육적 성취에 대해 주류 백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Sakamoto & Xie 2006; Kim & Zhao 2014).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계는 그들의 부모 세대와 비교할 때 교육, 직업 지위, 소득의 모든 면에서 크게 상승 이동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도 많이 사라진 것이다(Farley & Alba 2002; Park & Myers 2010).<sup>1)</sup>

아시아계는 백인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지만 빈곤한 사람 또한 더 많다. 아시아계의 빈곤에 관한 연구는 드문데,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계 이민 1세대의 빈곤율은 매우 높으며, 근래에 이민 온 사람일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크다(Lee 1994; Xie & Goyette 2004). 2000년 센서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계 중 빈곤한 사람의 비율 또한 백인보다 높다(Sakamoto & Xie 2006; Takei & Sakamoto 2011). 다만 연령, 성, 교육 수준을 통제했을 때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계는 백인과 비교하여 빈곤에 빠질 가능성에 차이가 없다. 빈곤자의 비율에서 아시아계 민족 간 차이는

1) 교육 수준에 대한 금전적 보상 이외에 노동시장의 다양한 요소, 예컨대 승진이나 비금전적 보상에서도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Kim & Zhao 2014).

크다. 근래에 이민 온 민족일수록 이민자 1세대에서는 물론 그들의 후손 중에도 빈곤할 가능성이 크다. 2000년 센서스로 볼 때 인도계, 중국계, 한국계는 평균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지만 빈곤율 또한 높다(Takei & Sakamoto 2011). 이는 백인 집단 내에서의 소득 격차보다 인도계, 중국계, 한국계 각각의 민족 집단 내에서 소득 격차가 더 큼을 시사한다. 일본계의 빈곤율은 백인과 유사한 수준인 반면,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출신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빈곤율 또한 높다.

아시아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인종주의’이다. 미국 사회의 위계적인 인종 질서에 바탕을 둔 유색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과 차별이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한한다는 가설이다(Bonilla-Silva 1996). 이 이론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계의 교육 수준에 대한 노동시장의 보상에 불이익이 없다는 근래의 연구 결과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다만 아시아계 중에서도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노동시장에서 유색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에게보다 더 크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이 부분은 본 연구의 초점이다. 미국 사회에는 근로 빈곤층이 적지 않으며 낮은 교육 수준이 빈곤의 원인 중 하나이므로, 만일 교육 수준이 낮은 아시아계가 교육 수준이 낮은 주류 백인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다면 미국 사회의 인종주의를 빈곤의 한 원인으로 의심할 수 있다.

아시아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설명하는 두 번째 이론은 ‘동화’이다. 과거에 유럽계 이민자들이 그랬듯이, 근래에 이민 온 사람들도 미국에 건너와 시간이 경과하고 세대가 넘어가면서 영어와 미국의 관습에 익숙해지고, 그에 따라 주류 사회 사람들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그들의 인적 자원에 대해 동등하게 대접받는다는 가설이다(Alba & Nee 1997). 이 이론은 아시아계 이민자 1세대는 물론 2세대 이후의 사회경제적 성취를 대체로 잘 설명한다. 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계가 주류 백인보다 교육, 직업, 소득 수준에서 왜 더 높은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학자들은 ‘분절화된 동화(segmented assimilation)’ 가설을 제시한다(Kao & Tienda 1995; Zhou 1997;

Goyette & Xie 1999). 아시아계 이민자는 그들의 자녀가 유색인 이민자 후손이기 때문에 겪을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회경제적 성취에 도움이 될 근면성, 자기통제, 성취동기 등과 같은 자신들의 긍정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자녀에게 물려준다. 즉 미국의 주류 집단의 관습과 가치관에 전적으로 동화되기보다는 자신들의 민족적 문화 자원 중 유리한 것을 선택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계는 그들의 부모와 유사하게 근면하고 자기통제력이 강하여 높은 교육 수준과 사회경제적 성취를 이룬다.

분절화된 동화 이론은 아시아계의 높은 사회경제적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계 중 주류 백인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계 중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화’ 이론이나 앞서 제시한 ‘차별’ 이론이 더 타당할 것이다. ‘동화’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류 집단과 근사해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들과 근사해짐을 뜻한다. 즉 빈곤의 주요 원인인 낮은 교육, 실업과 불완전 노동, 질병, 가정 파괴,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계가 주류 집단과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계 이민자의 세대가 넘어가면서, 이들에게 이민자의 독특함은 사라지는 대신 미국 사회의 계급 질서에 편입됨을 의미한다. 갠스는 이민자 1세에서 2세로 넘어오면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강할 위험성을 언급한다(Gans 1992).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후손 중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들의 부모와 달리 험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유색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주류 백인과 같은 대접을 받지 못하므로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락할 수 있다. 그의 지적은 피부가 어두운 중남미 이민자에게 주로 해당되지만, 유색인으로 취급되는 아시아계 후손에게도 그럴 위험성이 있다.

아시아계 미국인 중 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다(Min 2010). 한인 이민자가 밀집한 지역인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애틀랜타 지역 한인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질적인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Min 1996; Min 2008; Park 1997; Yoon 1997). 한인 이민자

들은 언어 장벽과 외국에서 교육 받은 불이익 때문에 모국에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걸 맞는 일자리를 미국의 직장에서 구하기 어려워 자영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특히 많다. 민병갑과 김치곤은 한인 이민자 1세의 60% 이상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민병갑·김치곤 2016). 한인 이민자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한인이 주로 하는 자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다룬다. 흑인 고객과의 갈등, 도매상과의 갈등, 히스패닉 고용인과의 관계, 한인 업자들과의 연대 등이 주요 주제이다.

미국에서 한인의 인구 비중이 매우 적으므로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통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한인 2세는 근래까지 성인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연구는 수행하기 어려웠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인 2세의 사회경제적 성취는 미국에서 태어난 다른 아시아계와 큰 차이가 없다(Sakamoto & Xie 2006; Kim & Sakamoto 2010; Takei & Sakamoto 2011). 2000년 이후의 센서스에 따르면 한인 2세는 교육, 소득, 직업 지위에서 인도계 및 중국계보다 낮은 반면, 필리핀계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계보다는 뚜렷이 높다. 일본계와 비교하면 교육 수준에서는 높으나 소득은 낮다(Sakamoto & Xie 2006; 민병갑·김치곤 2016).

아시아계 2세의 민족 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는 그들의 부모 세대의 차이를 부분적으로 물려받는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계를 예외로 한다면,<sup>2)</sup> 이민자 1세대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민족이 그들의 후손 세대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한인 이민자 1세대가 인도계, 중국계, 일본계 이민자 1세대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추세가 한인 2세대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아시아계 이민자의 빈곤 원인으로 동족 사업자에 의한 착취적인 노동이 흔히 지적된다(Kwong 1996). 즉 가난한 아시아계 이민자는 미국에 와서 초기에 같은 민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는데, 낮은 교육 수준과 자본의 결여 때문에 미국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져도

2) 필리핀계의 경우 다른 아시아계 민족과 달리 이민자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면서 사회적 상승이동이 뚜렷이 일어나지 않는다. 교육, 직업지위, 소득을 비교하였을 때 필리핀계 2세는 이민자 1세대보다 부분적으로 낮다(Min 2006).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저임금 노동자로 가난하게 살게 된다. 이들은 동족 경제권에 의존하여 빈곤한 생활을 이어가며,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빈곤이 이어진다. 가난한 아시아계 이민자의 자녀는 그들의 부모 세대의 계층 지위를 물려받아 중고등 학교에서 중도에 탈락하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동족 경제권 내에서 어린 나이부터 저임금 노동력으로 편입된다(Lew 2010). 즉 가난한 이민자의 자녀들에게 동족 공동체는 사회적 상승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기보다는 가난한 노동자로 주저앉히는 통로를 제공한다. 민족에 따라서는 동족 공동체에 기대어 생활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Shin & Liang 2014).

### Ⅲ. 분석의 틀

본 연구는 미국 인구통계국에서 매년 실시하는 미국 지역사회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자료를 사용한다. 이 가구 조사는 미국인 전체에 대해 대표성을 지니며, 매년 조사하는 가구 표본의 규모는 200만 가구 이상이므로 소수자의 사정을 연구하는 데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0-14년의 5개년의 ACS 자료를 사용한다. 이렇게 5년간 실시된 조사 자료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총 표본수는 3,044,073명이며, 이 중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은 97,758명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세 개의 집단과 비교한다. 하나는 미국의 주류 백인과 비교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계와 비교하는 것이다. 전자의 비교를 통해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가 미국의 주류 집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후자의 비교를 통해 인종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 소득, 교육, 빈곤율을 비교할 때 아시아계 중 중국계 2세는 한인 2세와 가장 흡사하다.<sup>3)</sup> 세 번째는 한인 1세와 비교한다. 한인이라는 공통된 배경에서 이민자가 아니라

3) 이 글에서 '2세'는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후예, 즉 이민 2세 이상 모두를 총칭한다. 일본계를 제외하고 3세 이상 인구는 매우 작다. 한인의 경우 본 연구의 대상인 미국에서 태어난 25세 이상 한인은 거의 대부분이 2세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어떻게 상황이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주류 백인은 미국에서 태어난, 히스패닉이 아닌 유럽계 백인으로 한정한다. ACS 자료에서 이들의 표본 규모가 매우 크므로 분석의 편의를 위해 20,000명을 임의 추출하여 사용한다.

<표 1>은 ACS 자료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표본을 민족별 세대별로 구분한 것이다. 이 조사 자료의 표본수를 보면 아시아계 미국인은 중국계, 필리핀계, 인도계, 베트남계, 한국계, 일본계의 순으로 많다.<sup>4)</sup> 아시아계는 세대 구성에서 민족 간 차이가 크다. 일본계의 경우 2세대 이상 인구가 65.2%에 달하는 반면, 다른 아시아계 민족 중 미국에서 태어난 후손은 3분의 1에 불과하다. 한인의 경우 2세대 이상은 29.6%이며, 미국에 12세 이전에 건너간 1.5세대까지 포함할 경우 미국에서 성장한 한인은 약 절반(48.8%)을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이상 중 25세 이상의 성인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를 비교할 경우 1.5세대를 제외한 이민 1세대만을 1세대로 규정하여 세대 간 차이를 비교한다. 이렇게 한인 1세대를 한정하는 이유는 뒤에 서술하듯이, 미국에서 성장한 1.5세대의 경험은 1세보다 2세에 가깝기 때문이다.

<표 1> 아시아계 미국인의 민족별, 세대별 분포

	Asian Indian	Filipino	Japanese	Chinese	Korean	Vietnamese	Others	Total
1세대 <sup>1)</sup>	67.5%	49.7%	27.4%	55.0%	51.1%	52.6%	53.2%	51.7%
1.5세대 <sup>2)</sup>	11.1%	13.2%	7.4%	12.0%	19.2%	15.6%	12.8%	12.7%
2세대 <sup>3)</sup>	21.4%	37.1%	65.2%	33.1%	29.6%	31.8%	34.0%	35.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본수(명)	512,083	621,710	254,340	774,573	330,265	336,002	194,983	3,044,073

\* American Community Survey(2010-14)

\*\* 1) 1세대는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중 1.5세대를 제외한 수치임/

2) 1.5세대는 미국으로 이민 올 당시 12세 이하 사람을 지칭함/

3) 2세대는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 이상 사람을 모두 지칭함

4) 아시아계의 민족별 인구 규모는 두 개 이상의 인종 민족이 복합된 사례를 어떻게 분류하는가에 따라 순위가 뒤바뀐다. 미국 인구통계국의 2010년 인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의 인구 규모별 순위는 아시아계 단일 인종만으로 계산할 때 중국계, 인도계, 필리핀계, 베트남계, 한국계, 일본계의 순이다(US Census Bureau 2012, 16).

<표 2> 한인의 세대별 연령 분포

연령	1세(1.5세 제외)	1.5세	2세	전체
0-15	0.3%	23.8%	47.9%	18.9%
16-24	6.1%	21.4%	24.2%	14.4%
25-34	13.2%	24.6%	17.7%	16.7%
35-44	21.3%	22.6%	6.8%	17.2%
45-54	23.8%	6.6%	1.8%	14.0%
55-64	17.7%	1.0%	0.7%	9.4%
65+	17.6%	0.1%	0.9%	9.3%
전체	100.0%	100.0%	100.0%	100.0%

\* American Community Survey(2010-14)

\*\* 한인 1세는 12세 넘어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에 한정함/  
1.5세는 외국에서 출생하였으나 12세 이전에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을 의미함

한인 2세는 여전히 대다수가 젊은 연령에 속해 있다. 2010-14년에 이르러도 한인 2세의 72.1%는 25세 미만이다(<표 2> 참조). 이들 중에는 생계를 부모에 의존하거나 학업에 종사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다. 반면 45세 이상의 한인 2세는 3.4%에 불과하다. 즉 본 분석의 대상인 25세 이상 한인 2세의 대부분은 한창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연령인 35-44세에 속한다. 한인 1.5세의 경우 2세보다는 연령이 높지만, 역시 45세 미만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반면 한인 1세 중에는 은퇴 연령인 65세 이상이 17.6%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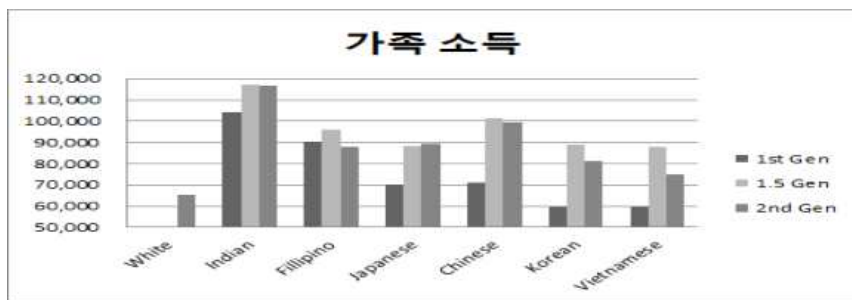
아시아계 미국인은 민족 간 다양성이 크다. 아시아계 이민 1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영어 구사력, 미국에 체재한 기간, 교육 수준이 지적되므로, 이러한 변수에 따라 아시아계 이민자를 크게 3-4개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Min 2006; Sakamoto et al. 2009). 첫 번째 집단은 인도계와 필리핀계이다. 이들은 이민 1세대에도 언어 장벽이 없으므로 다른 아시아 민족과 이민자의 경험을 달리한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적으며, 높은 교육 수준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 두 번째 집단은 중국계와 한인이다. 이들은 이민 1세대에도 언어 장벽이 크지만 높은 교육 수준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지만 동족 내의 격차가 크다. 앞의 집단과 비교하여 이민 1세대에는 자영업 종사자가 많으며 긴밀한 동족 공동체를 형성한다. 세 번째 집단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

아시아 출신이다. 이들은 최근에 이민 온 사람이 많고 교육 수준이 낮으므로 주류 백인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 마지막으로 일본계는 아시아계의 다른 민족과 구분되는 독특한 집단이다. 일본계는 근래에 이민 온 사람이 적고 대부분 2세 이상이다. 일본계 미국인은 백인과 결혼한 사람이 많으며 백인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

아시아계는 이민 1세대와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 이상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계는 그들의 부모 세대와 달리 영어를 모국어로 하며,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롭다. 이들은 이민자 부모세대의 가치관을 선택적으로 물려받으면서 주류 백인의 기준에 따라 사회활동을 하여 높은 사회경제적 성취를 거두었다.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언어 습관이 고정되기(12살) 전에 미국에 건너온 사람을 1.5세대라고 칭한다. 이들은 언어 장벽이 없으며 미국에서 중고등 교육을 받았다. 이들의 경험은 2세와 흡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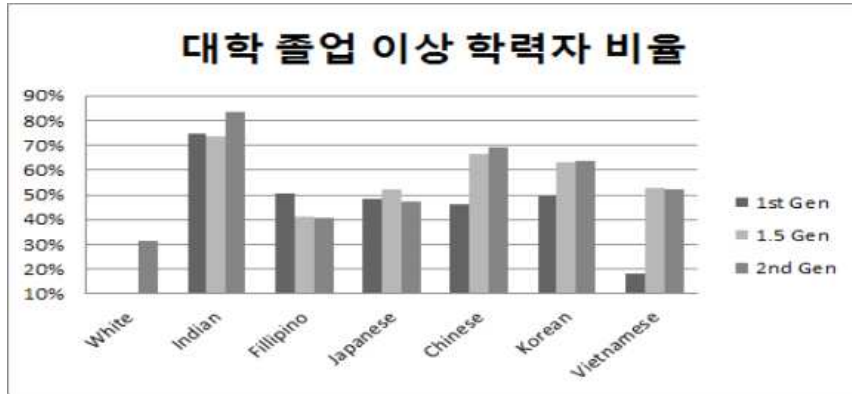
<그림 1, 2, 3>은 아시아계의 민족별 세대별 교육 수준, 가족 소득, 빈곤율을 보여준다. 이 그림 모두에서 1.5세대는 이민 2세대와 매우 흡사하다. 이는 어렸을 때 이민 와 미국에서 성장한 사람을 성인이 되어 이민 온 사람과 함께 뭉뚱그려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지지한다(Zeng & Xie 2004; Kim & Sakamoto 2010; Oh & Min 2011). 이 세계의 그림에서 한인은 인도계, 필리핀계, 일본계보다는 중국계에 가장 가깝다. 한인은 모든 세대에서 베트남계보다 사회경제적 지표에서 앞서는 반면, 인도계보다는 뚜렷하게 뒤쳐져 있다.

<그림 1> 아시아계의 가족소득(2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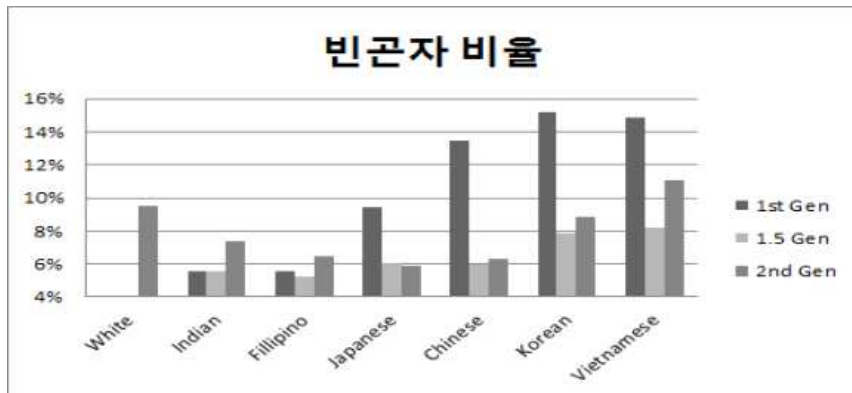
\* American Community Survey(2010-14)

<그림 2> 아시아계의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 비율(25세 이상)



\* American Community Survey(2010-14)

<그림 3> 아시아계의 빈곤자 비율(25세 이상)



\* American Community Survey(2010-14)

아시아계의 모든 민족은 2세대에서 백인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누린다. 그러나 이민자 1세대와 백인을 비교하면 사정이 다르다. 인도계, 필리핀계, 중국계, 일본계는 백인보다 잘살지만, 한인과 베트남계는 백인보다 못산다. 일본계를 제외하고는 아시아계의 1.5세대가 2세대보다 약간이나마 소득이 높다. 이는 아시아계 1.5세대가 2세대보다 이민자 부모의 가치관을 더 충실히 따르기 때문에 더 성공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Oh & Min 2011).

베트남계를 제외하면, 아시아계는 이민 1세대에서부터 주류 백인보다 교

육 수준이 훨씬 높다. 특히 인도계는 1세와 2세 모두에서 백인은 물론 다른 아시아 민족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인도계의 소득이 다른 아시아계보다 훨씬 높은 경향은 교육 수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아시아계 2세는 부모 세대보다 교육 수준이 높지만, 필리핀계와 일본계는 예외이다. 필리핀계 2세의 교육 수준은 부모 세대보다 낮으며, 일본계는 1세와 2세 이상 사이에 차이가 없다.

아시아계의 빈곤율을 보면, ‘모범적인 소수자’의 이미지는 흐려진다. 1세의 경우 인도계와 필리핀계만 백인보다 빈곤자가 적을 뿐, 중국계, 한국계, 베트남계는 백인보다 훨씬 높다. 아시아계 2세로 가면 사정이 다르다. 베트남계를 제외하면, 아시아계는 백인보다 빈곤자가 적다. 한인 2세는 다른 아시아계 민족보다 빈곤자가 많은 편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은 가족 소득을 측정한다. 5개년의 조사 자료를 사용하므로, 각 년도의 가족 소득은 소비자가격지수를 사용하여 2013년 달러 가치로 표준화하였다.<sup>5)</sup> 빈곤선은 미국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가구 규모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반영한 절대적인 빈곤 지표이다. 2013년 4인 가구의 빈곤선은 연소득 US\$23,550이다. 미국 정부에서 규정한 빈곤선이 인간적인 수준의 생계에 미달한다는 비판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빈곤선 이하의 소득자를 ‘빈곤자’로 정의한다.

교육은 고등학교 졸업 미만,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상의 다섯 개 범주로 구분한다. 아시아계 2세 중 대다수는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 그러나 여기서는 빈곤자에 초점을 맞추므로 교육 수준의 범주를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였다. 빈곤자의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참가 여부와 취업 여부로 구분한다. 센서스 조사에는 근로 조건을 측정하는 지표가 여럿 있지만, 빈곤자 중 다수가 비경제활동인구이거나 실업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장 단순한 지표로 측정하였다. 빈곤자 중 취업자는 ‘근로 빈곤자’에 해당한다.

빈곤자 중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이상적인 형태의 가족으로 사

5) 2013년의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가장 최근 조사인 2014년 조사에서 전년도, 즉 2013년의 소득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는 경우가 많지 않다. 미혼이나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홀로 살거나, 부모 중 한쪽과 그 자녀가 사는 경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인다. 빈곤은 이러한 비전형적인 가족 형태를 만드는 원인이면서, 동시에 거꾸로 가족 파괴는 가난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다. 여기서는 혼인 상태를 미혼(결혼한 적 없이 홀로 사는 경우), 이혼(별거, 사별 포함), 결혼하여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의 셋으로 구분한다.

<표 3> 한인, 중국계, 백인의 특성(25세 이상)

		한인 1세 (1.5세 제외)	한인 2세	한인 2세 빈곤자	중국계 2세	백인
연령 <sup>1)</sup>		48.8	17.8	18.5	21.7	40
여성 비율 <sup>1)</sup>		59.3%	50.2%	52.7%	48.9%	50.4%
교육 수준	고졸 미만	9.6%	2.1%	4.7%	2.6%	8.7%
	고졸	22.1%	9.3%	15.6%	8.6%	29.4%
	대졸 미만	18.9%	24.7%	35.4%	19.4%	30.7%
	대졸 이상	49.3%	63.9%	44.2%	69.4%	31.3%
가족 소득		\$59,653	\$81,442	\$6,000	\$99,373	\$65,635
경제활동 참가율 <sup>2)</sup>	남자	83%	88.3%	49%	88%	84.8%
	여자	57%	81.1%	49%	82%	73.6%
취업자 비율 <sup>2)</sup>	남자	79.1%	82.9%	38.0%	83.9%	79.1%
	여자	52.8%	75.8%	35.9%	78.7%	69.4%
혼인 지위	부부 가족	75.1%	41.7%	16.8%	50.0%	61.4%
	미혼/혼자 삶	10.5%	50.1%	66.4%	40.3%	15.6%
	이혼/별거/사별	14.5%	8.3%	16.9%	9.6%	23.1%
지역	남부	23.9%	22.2%	21.5%	11.0%	34.7%
	중서부	9.6%	13.1%	15.7%	6.6%	27.0%
	북동부	21.3%	18.4%	18.9%	21.3%	19.5%
	서부	45.2%	46.3%	43.9%	61.1%	18.9%
한인/중국계 거주밀도 <sup>3)</sup>		1,414명	1,123명	1,115명	2,252명	-

\* American Community Survey(2010-14)

\*\* 1) 전 연령을 대상으로 계산함/ 2) 25-64세 연령을 대상으로 계산함/

3) 한인인 센서스 구역의 한인 표본수를, 중국계는 중국계의 표본수를 나타냄

아시아계는 서부 해안가 지역과 동부 대도시에 몰려 살며, 동족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인근에 많이 산다. 지역 구분은 동북부, 중서부, 남부, 서부의 네 범주로 한다. 동족 집단 거주지 인근에 사는 것이 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10-20만 명 단위로 구분된 센서스 지역(PUMA)에 같은 민족 사람이 얼마나 사는지 측정한다. 이는 각 센서스 지역에 사는 같은 민족 사람의 표본수로 측정한다. 한인의 경우 센서스 지역에 사는 한인의 표본수이며, 중국계는 중국계의 표본수이다. <표 3>은 한인 1세, 2세 전체, 2세 빈곤자, 중국계 2세, 백인에 대한 각 변수의 기술 통계치이다.

## IV. 분석 결과

### 1. 한인 2세 빈곤자의 인구학적 특성

한인 2세는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사람이 적다. 한인 2세의 빈곤율은 8.9%를 기록하여 한인 1세의 빈곤율 15.2%보다 훨씬 낮다. 한인 2세의 빈곤율은 백인(9.5%)보다는 낮지만 중국계 2세(6.3%)보다는 훨씬 높다. 한인 1세의 연령대별 빈곤율은 뚜렷한 U자형 곡선을 보인다. 즉 사회에 진출한지 얼마 안 된 젊은 시절과 은퇴하는 나이인 65세 이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러한 U자형 곡선은 한인 2세에게서도 관찰된다. 한인 2세 중 55세 이상에서 빈곤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2012년을 기준으로 55세인 사람은 1957년에 태어났다. 이들은 1965년 이민 문호 개방 이전에 미국에서 출생한 사례로, 1905-10년에 농업 노동자로 건너간 한인의 후예이거나, 일제 강점기에 학업 등의 목적으로 건너간 한인의 자손이거나, 한국동란 이후 입양되었거나 미군과 결혼한 한인의 후예일 가능성이 크다(Min 2006).

25세에서 54세까지, 즉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에는 한인 2세 중 가난한 사람이 적으나, 경제활동이 퇴조하는 55세 이후에는 백인보다 현저히 많다. 특히 그 차이는 65세 이후에 크게 벌어진다. 백인의 경우 60

세가 넘으면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여 빈곤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한인 2세 중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빈곤에 빠지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인 2세와 중국계 2세의 격차는 65세 이상에서 매우 크며, 55-64세에도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즉 한인 2세 중 55세 이상에서는 백인은 물론 아시아의 다른 민족과 비교해도 어렵게 사는 사람이 더 많다. 물론 한인 2세 중 55세 이상은 1.6%에 불과하다. 미국의 인구통계국에 따르면 2010년 한인 인구는 1,706,822명이다(US Census Bureau 2012, 14). 이 중 2세는 29.6%, 505,000명이며, 이 중 55세 이상 빈곤자는 1,05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약 천 명가량의 한인 2세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오래 살았음에도 백인보다 힘들게 살고 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여성은 백인보다 사회활동에 더 적극적이며 사회경제적 성취 또한 더 높다(Sakamoto et al. 2009; Kim & Zhao 2014). 교육 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직업지위, 근로 시간, 임금 수준 등 모든 경제활동 지표에서 아시아계 여성은 백인 여성을 앞선다. 미국인 빈곤자 중 여성이 많은데, 한인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한인 1세와 2세 모두 빈곤자 중 여성의 비율이 백인이나 중국계 2세보다 높다. 한인 2세 빈곤자 중 여성의 비율은 56.7%로 남성보다 13.4% 포인트나 높다. 반면 중국계 2세 빈곤자 중에는 남성이 더 많은데,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인 25-54세 사이에 여성 빈곤자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낮다. 한인과 비교하여 중국계 여성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활동 성향이 반영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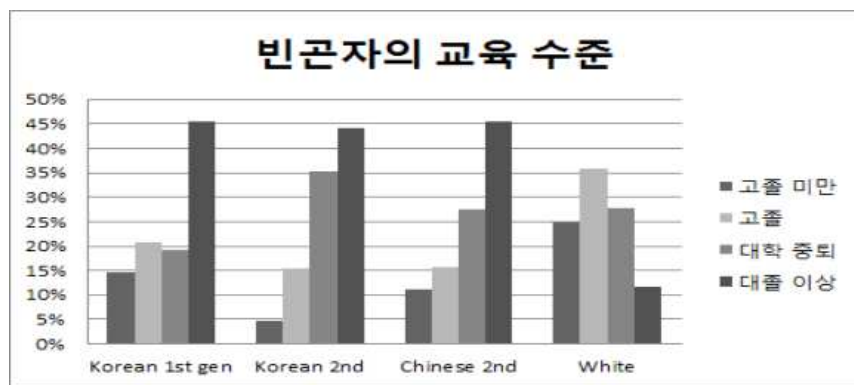
빈곤자는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가 적다. 가족 형태는 빈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가난하면 이상적인 가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거꾸로 가족 붕괴는 가난에 빠질 가능성을 높인다. 아시아계는 백인보다 가족 유대가 강하므로 전통적인 가족 속에서 사는 경우가 더 많은데, 빈곤자의 경우에도 그러할까? 한인 2세 빈곤자 중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사람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다. 25세 이상 빈곤자 중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은 16.8%에 불과하다. 이는 한인 2세가 전반적으로 젊다는 것을 감안하여도 특이하게 높다. 왜냐하면 25세 이상 한인 2세 전체 중 부부가족은 41.7%에 달하기 때문이다(<표 3> 참조). 중국인 2세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여, 빈곤자 중 미혼으로 홀로 사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다. 이는 백인 빈곤자 중에 미혼으로 홀로 사는 사람이 3분의 1에 불과한 것과 대조된다. 대신 백인 빈곤자 중에는 이혼, 별거, 사별을 한 사람이 한인이나 중국계보다 훨씬 많다. 이것으로 볼 때 아시아계는 백인과 달리 결혼을 하고 이혼, 별거, 사별로 홀로되어 빈곤한 경우보다는, 가난하면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사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반면 한인 1세 빈곤자 중에는 부부가족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들은 경제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족 가치가 2세대보다 훨씬 강한 것이다.

## 2. 한인 2세 빈곤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아시아계 미국인은 백인보다 교육 수준이 훨씬 높는데, 이는 빈곤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인 1세, 한인 2세, 중국인 2세의 빈곤자는 백인 빈곤자보다 교육 수준이 훨씬 높다(<그림 4> 참조). 예컨대 한인 1세, 한인 2세, 중국인 2세 빈곤자의 경우 대졸 이상 학력자가 45%에 달하나, 백인 빈곤자의 경우 이 비율은 11.7%에 불과하다. 반면 한인과 중국계 2세 빈곤자 중 고졸 미만 학력자는 5-11%에 불과한 반면, 백인 빈곤자 중 고졸 미만 학력의 비율은 25%에 달한다. 낮은 교육이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시아계 빈곤자가 학력이 높음에도 빈곤하다는 사실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림 4> 한인, 중국계, 백인 빈곤자의 교육 수준



\* American Community Survey(2010-14)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대학 졸업 이상의 교육 수준이 높은 아시아계에게는 인종 차별의 불이익이 명시적으로 가해지지 않는다(Sakamoto & Xie 2006; Kim & Sakamoto 2010; Kim & Zhao 2014). 그러나 아시아계 평균보다 교육 수준이 낮은 아시아계 사람에게는 추가적으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모범적인 소수자’라는 칭호가 시사하듯이, 아시아계에게는 일반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에 성공적인 직업 활동이 기대되는데, 이러한 이미지에 미치지 못하는 아시아계에게는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다. 백인보다는 교육 수준이 높지만 다른 아시아계보다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주류 사회는 물론 아시아계 사람들 사이에서도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을 것이다. 그 정도의 교육을 받은 백인이라면 취업될 수 있는 일자리를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다른 아시아계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기피되는 경우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근로자의 교육 수준은 노동 시장에서 그가 앞으로 제공할 노동의 질에 대한 ‘신호’의 역할을 한다. 교육 수준에서 다른 아시아인보다 뒤지는 사람은 ‘열등하다’는 신호를 미래의 고용자에게 보내는 것이다. 아시아계 2세가 주류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었다면 교육 수준의 가치가 노동시장에서 백인과 동등하게 평가되었지만, 아시아계가 주류 백인과 구별되는 한 아시아계 내에서 열등한 지위의 사람에 대한 주류 사회의 차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류 사회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아시아계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시아계 내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주류 사회의 차별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해야 할 부분이다.

미국에서 아시아계는 백인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다. 본 연구에서 25-64세의 한인 2세 남자와 여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각각 88.3%, 81.1%로 같은 연령대 백인 남녀의 84.8%, 73.6%를 크게 앞선다(<표 3> 참조). 경제활동 참여 면에서 한인 2세 빈곤자는 남녀 모두 백인과 큰 차이가 없다. 한인 2세 빈곤자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48.8%, 48.9%인데, 이는 백인 빈곤자의 48.0%, 47.0%와 흡사하다. 중국인 2세 빈곤자 역시 백인과 경제활동 참여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경제활동 참가자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개념이므로, 취업하여 일하지만 빈곤한

사람, 즉 ‘근로 빈곤자’를 가려내기 어렵다. 빈곤자 중 취업하여 일하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한인 2세는 남녀 모두 빈곤자 중 근로 빈곤의 비율이 백인보다 높으며 중국인 2세 보다도 높다. 한인 2세 빈곤자 중 3분의 1 이상은 근로 빈곤층이다. 한인 1세와 2세를 비교하였을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큰 차이를 발견한다. 한인 2세의 경우 남녀의 차이가 미미하나, 한인 1세 여성은 남성보다 경제활동에 훨씬 덜 참여한다. 한인 2세는 그들의 부모 세대와 달리 미국의 가치관을 받아들여 남녀 구별 없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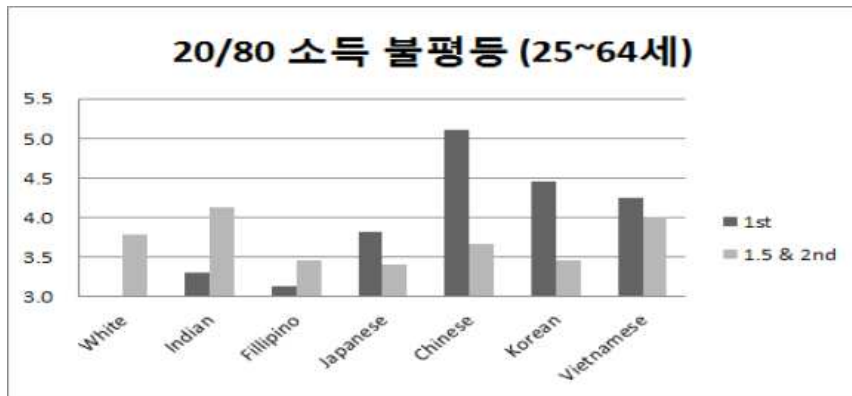
미국의 한인과 중국계는 로스앤젤레스의 코리아타운이나 뉴욕의 차이나타운과 같이 동족이 몰려서 생활하는 지역이 있다. 이민의 초기 단계에는 이러한 동족 집단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미국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류 사회에 진출하기 어려운 동족 근로자를 시장 임금보다 싸게 고용하여 착취한다는 비판을 듣기도 한다. 남의 사업체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계속 일하면서 동족 집단 거주지를 벗어나지 못하면 가난의 굴레에 갇힐 위험성이 있다. 동족 집단 거주지에서 생활하면 가난의 가능성이 높을까? 한인과 중국계의 일반인과 빈곤자 사이에 자신이 사는 센서스 단위 구역에 같은 민족 사람이 사는 빈도를 비교한 결과, 이민 1세대에서는 한인과 중국계의 구별 없이 빈곤자가 일반인보다 동족 거주지에 더 많이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세대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발견된다. 즉 빈곤자가 일반인보다 같은 민족 출신이 사는 지역에 덜 거주한다. 특히 중국계 2세대 빈곤자는 일반인보다 중국계가 사는 지역에 훨씬 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미국 생활에 익숙한 2세의 경우에 동족 집단 거주지에 살기 때문이거나 혹은 동족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아시아계는 백인보다 평균 소득이 높지만 빈곤율 또한 높다. 이는 아시아계 사이에 소득의 격차가 백인보다 큼을 의미한다. 아시아계 사이에 소득 격차는 아시아 민족 사이의 격차와 각 민족 내에서의 격차로 나눌 수 있다. 앞의 <그림 1>에서 보았듯이 인도계와 베트남계 사이에는 가족 소득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한인 1세의 경우 평균 소득과 빈곤율 모두 백인보다 높으므로 한인 1세 내에서 소득 격차는 백인 사이의 격차보다 클 것

이다. 예컨대 미국에서 성공하여 큰돈을 번 한인 이민자와 한인 사업체에 서 저임금 노동자로서 힘겹게 살아가는 한인 이민자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 한인 2세의 경우는 어떤가?

<그림 5>는 아시아계 이민자 1세와 2세(1.5세 포함) 사이에 각 민족 집단 내에서 소득 분포상 하위 20%와 80%의 소득 배율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한인과 중국계 1세 내에서 소득 격차는 다른 아시아 민족이나 아시아계 2세대보다 훨씬 크다. 한인 1세의 경우 소득 분포상 80% 위치에 있는 사람은 20%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 4.5배 더 소득이 많으며, 90% 위치의 사람은 10% 위치의 사람보다 13.1배 더 많다. 반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계 사람들 간에는 소득 격차가 부모세대 만큼 크지 않다. 한인 2세와 중국계 2세의 소득 격차는 백인의 소득 격차보다 훨씬 작다. 한인 2세(1.5세 포함) 중 소득 분포상 80% 위치에 있는 사람은 20%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 3.5배 더 소득이 높다. 반면 인도계와 필리핀계는 특이하게 1세에서 2세로 넘어가면서 집단 내 소득 격차가 현저하게 높아진다. 인도계와 필리핀계 이민자 1세 내에서는 소득 격차가 작으나, 그들의 자식 세대로 넘어가면서 소득의 격차가 벌어진다. 이들은 한인이나 중국계 1세와 달리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아시아계 미국인이 20/80 소득 불평등(25~64세)



\* American Community Survey(2010-14)

### 3. 한인 2세의 빈곤의 원인

빈곤은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인 2세의 빈곤의 원인을 파악하려면 무엇보다 그들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센서스 자료에서 피조사자의 부모에 대한 정보는 제한되어 있다. 대신 노동 시장에서 중시되는 요소인 교육 수준과 직업 경험의 대리 변수인 연령에 대한 정보는 가용하므로, 이 요인을 중심으로 빈곤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표 4>는 25세 이상의 한인 2세, 중국계 2세, 백인의 세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여 빈곤의 가능성을 종속변수로 한 로짓 회귀분석 결과이다. <모델 1>은 연령, 성별, 교육 수준만을 설명변수로 한 기본 모델이며, <모델 2>는 경제활동참여 여부, 혼인 지위, 지역을 설명변수로 추가한 모델이며, <모델 3>은 집단에 따라 교육 수준이 빈곤의 가능성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상호 작용 항을 추가한 모델이다. 표에서 회귀계수는 'Odds Ratio'로서 값이 1.0을 넘으면 양의 방향의 효과를 1.0보다 작으면 부의 효과를 의미한다.

예상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빈곤의 가능성은 낮다(<모델 1> 참조). 연령의 제곱항의 계수가 1.0보다 큰 것은 연령이 매우 높을 경우 빈곤의 가능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난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빈곤의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다. 한인 2세는 백인보다 빈곤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 중국계 2세는 백인보다 빈곤의 가능성이 낮다. <모델 2>와 <모델 3>에서 중국계 2세는 백인보다 빈곤의 가능성이 일관되게 낮은 반면, 한인 2세는 혼인 지위와 지역을 통제했을 경우 백인과 빈곤의 가능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예상대로 미혼이나 이혼 사별한 경우 부부가족보다 빈곤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으며, 남부는 다른 지역보다 빈곤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모델 3>에서 한인 2세와 교육 수준을 교차한 상호 작용 항의 계수(1.193)의 규모가 크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빈곤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는 한인 2세의 경우 백인보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빈곤의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적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같은 교육 수준이라면 한인 2세가 백인보

다 빈곤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계 2세의 경우 상호작용 항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한인 2세와 중국계 2세는 교육 수준이 비슷한데, 왜 한인 2세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빈곤을 줄이는 효과가 백인은 물론 중국계 2세보다 작은 것일까? 김과 사카모도의 연구에서 대학을 졸업한 남성을 대상으로 할 때 한인 1.5세는 백인보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임금 상승폭이 더 크다(Kim & Sakamoto 2010, 950).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인의 경우, 교육 수준이 빈곤의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는 교육 수준이 높은 한인의 경우와 다른 것이다. 미국 사회가 교육 수준이 높은 한인은 차별하지 않지만,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인은 차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인 2세의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표 4> 빈곤의 가능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 1	모델 2	모델 3
연령		.908**	.981**	.981**
(연령) <sup>2</sup>		1.001**	1.000**	1.000**
여성		1.125**	1.011**	1.009**
교육 수준		.504**	.617**	.599**
경제활동 참여			.138**	.138**
혼인 지위 <sup>1)</sup>	미혼			
	이혼/사별		4.077**	4.066**
지역 <sup>1)</sup>	남부		1.393**	1.182**
	중서부		1.024**	1.394**
	북동부		1.010**	1.019**
집단 구분 <sup>1)</sup>	한인 2세	1.092**	1.010	.583**
	중국인 2세	.920**	.914**	.944**
상호 작용 항	(한인 2세)X(교육 수준)			1.193**
	(중국인 2세)X(교육 수준)			.997
Pseudo-R <sup>2</sup>		.084	.242	.243

\* American Community Survey(2010-14)

\*\* 25세 이상 한인 2세, 중국인 2세, 백인이 분석대상임. 수치는 Odds Ratio임. \*\* p<0.01에서 유의미함

\*\*\* 1) 혼인지위의 준거집단은 '결혼한 사람', 지역의 준거 집단은 '서부', 집단 구분의 준거집단은 '비이민자이며 비히스패닉계 백인'임

<표 5>는 한인 1세, 한인 2세, 중국인 2세, 백인의 각 집단에 대해 빈곤의 가능성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다. 이는 인종민족 집단과 세대 사이에 빈곤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효과를 상호 비교함과 함께, 동족 거주 밀도가 빈곤의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네 개의 회귀분석 간에 설명 변수의 계수의 방향은 거의 유사하다. 다만 회귀 계수의 규모에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 한인 2세를 중심으로 하여 두드러지는 차이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한인 2세의 경우 여성의 빈곤의 가능성이 두드러지게 높다. 이는 중국계 2세의 경우 남녀 간 빈곤의 가능성에 차이가 없는 것과 대조된다. 한인 1세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빈곤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정도가 미미하다. 이는 외국에서 교육받은 학력을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관행 때문이다(Zeng & Xie 2004).

<표 5> 빈곤의 가능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인종민족 집단별, 세대별)

	한인 1세	한인 2세	중국계 2세	백인
연령	.909**	.972**	.994**	.954**
(연령) <sup>2</sup>	1.001**	1.000**	1.000**	1.000**
여성	.585**	1.238**	.993	.940**
교육 수준	.928**	.747**	.628**	.568**
경제활동 참여	.154**	.120**	.105**	.189**
혼인 지위 <sup>1)</sup>	미혼	2.939**	4.072**	3.691**
	이혼/사별	3.867**	6.394**	4.086**
지역 <sup>1)</sup>	남부	.939**	1.152**	1.448**
	중서부	1.189**	1.459**	1.771**
	북동부	1.222**	1.225**	1.272**
한인 거주 밀도 <sup>1)</sup>	1.000**	1.000**		
중국계 거주 밀도 <sup>1)</sup>			1.000**	
Pseudo-R <sup>2</sup>	.237	.232	.239	.265

\* American Community Survey(2010-14)

\*\* 25세 이상 한인 1세, 한인 2세, 중국인 2세, 백인이 분석 대상임/  
수치는 Odds Ratio임/ \*\* p<0.01에서 유의미함

\*\*\* 1) '혼인지위'의 준거집단은 '결혼한 사람'임/ '지역'의 준거 집단은 '서부'임/ 한인 및 중국계 거주 밀도는 센서스 조사단위에 거주하는 한인 혹은 중국인의 숫자로 측정함

모든 집단에서 미혼이나 이혼 사별은 빈곤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한인 2세의 경우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 중국인 2세와 비교하여도 한인 2세의 미혼이나 이혼 사별은 부부가족보다 빈곤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반면 한인 1세의 경우 미혼이나 이혼 사별은 빈곤의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덜 높인다. 한인이 밀집한 거주지에 살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빈곤의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질문에 대해 회귀분석 결과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는다. 그러나 그 차이는 미미하다. 한인 2세나 중국계 2세 빈곤자는 빈곤하지 않은 사람보다 동족의 밀집 거주지에 사는 비율이 낮으므로, 한인 2세나 중국계 2세가 빈곤한 이유는 동족이 많이 사는 지역에 살기 때문보다는 다른 요인 때문에 빈곤한 것이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10-14년 미국 지역사회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의 대규모 데이터를 사용하여 한인 2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빈곤을 검토하였다. 한인 2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빈곤과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드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사정을 이해하는 탐색적인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인 2세를 한인 1세, 중국계 2세, 백인과 비교하여 통계치의 상대적인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한인 2세 중 열 명에 일곱은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는 이른 나이인 25세 이하의 연령에 속해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은 그들의 부모인 한인 1세와 경험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한인 2세는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아시아계 민족 중 중국계 2세와 가장 근사하다. 한인 2세는 백인보다 빈곤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한인 2세 빈곤자는 중국계 2세나 백인과 달리 여성이 많으며, 55세 이상 고령층에서 빈곤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한인 2세 빈곤자 중 미혼으로 홀로 사는 비율이 중국계 2세나 백인보다 훨씬 높다.

한인 2세 빈곤자의 학력은 백인보다 훨씬 높으며 중국계 2세보다도 더 높다. 한인 2세 빈곤자 중 고졸 미만 학력을 소유한 사람은 매우 드물다.

이는 백인 빈곤자의 4분의 1 이상이 고졸 미만인 것과 뚜렷이 대조된다. 한인 2세 빈곤자 중에는 근로 빈곤층이 백인이나 중국계 2세보다 더 많다. 그들의 부모 세대와 달리 한인 2세 빈곤자는 빈곤하지 않은 사람보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덜 산다. 한인은 아시아계 중에서도 소득 격차가 큰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1세에만 해당될 뿐 2세에는 소득 격차가 크지 않다. 한인 2세는 1세와 달리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적으므로 소득 격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아시아계 민족보다도 더 소득 면에서 동질적이라는 점은 새로운 발견이다.

관련 요인을 통제하고 나서도 한인 2세는 중국계 2세는 물론 백인보다 빈곤의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빈곤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효과에서 한인 2세는 중국계 2세는 물론 백인보다 현저히 약하다. 교육 수준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백인과 아시아계 간에 차이가 없다는 기존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왜 한인 2세는 백인보다 교육 수준이 높음에도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지는 분명치 않다. 한인 2세의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한인 2세가 노동시장에서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한인 2세는 근래까지 성인 인구가 많지 않기에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이용한 연구가 어려웠다. 특히 한인 2세 중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았다. 탐색적인 성격의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한인 2세는 백인은 물론 그들과 유사한 중국계 2세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백인보다 교육 수준이 높음에도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크며, 빈곤자 중 미혼으로 혼자 사는 사람이 두드러지게 많다. ‘모범적 소수자’라는 칭호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에 미치지 못하는 한인은 같은 조건의 백인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본 연구에서 확인한 가장 중요한 발견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민병갑·김치곤 (2016). “재미동포의 미 주류경제 및 정치참여.” 재외한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Alba, Richard and Victor Nee (1997). “Rethinking Assimilation Theory for a New Era of Im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1, pp. 826-874.
- Bonilla-Silva, Eduardo (1996). “Rethinking Racism: Toward a Structural Interpret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2. No. 3, pp. 465-480.
- Farley, Reynolds and Richard Arba (2002). “The New Second Generation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6. No. 3, pp. 669-701.
- Gans, Hurbert (1992). “Second Generation Decline: Scenerios for the Economic and Ethnic Futures of the Post-1965 American Immigrants.”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15, pp. 173-192.
- Goyette, Kimberly A. and Yu Xie (1999). “Educational Expectations of Asian American Youths: Determinants and Ethnic Differences.” *Sociology of Education*. Vol. 72, pp. 22-36.
- Kao, Grace and Martha Tienda (1995). “Optimism and Achievement: The Educational Performance of Immigrant Youth.”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76. No. 1, pp. 1-19.
- Hirschman, Charles and Morrison G. Wong (1984). “Socioeconomic Gains of Asian Americans, Blacks, and Hispanics: 1960-1976.”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0, pp. 584-607.
- Kim, ChangHwan and Arthur Sakamoto (2010). “Have Asian American Men Achieved Labor Market Parity with White 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75. No. 6, pp. 934-957.
- Kim, ChangHwan and Yang Zhao (2014). “Are Asian American Women Advantaged? Labor market Performance of College Educated Female Workers.” *Social Forces*. Vol. 93. No. 2, pp. 623-652.
- Kwong, Peter (1996). *The New Chinatown*. New York: Farrar Strauss and Giroux.
- Lee, Sharon M. (1994). “Poverty and the U.S. Asian Population.”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75. No. 3, pp. 541-559.
- Lew, Jamie (2010). “Asian American Youth in Poverty: Benefits and Limitations

- of Ethnic Networks in Postsecondary and Labor Force Options.” *Journal of Education for Students Placed on Risk*. Vol. 15, pp. 127-143.
- Min, Pyong Gap (1996). *Caught in the Middle: Korean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Berk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ed.) (2006). *Asian Americans*. Thousand Oaks, CA: Pine Forge.
- \_\_\_\_\_ (2008). *Ethnic Solidarity for Economic Survival: Korean Greengroceries in New York City*.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_\_\_\_\_ (2010). “A Four-Decade Literature on Korean Americans: A Review and a Comprehensive Bibliography.” *Studies of Koreans Abroad*. Vol. 21, pp. 15-134.
- Oh, Sookhee and Min Pyong G. (2011). “Generation and Earning Patterns Among Chinese, Filipino, and Korean Americans in New York.”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45. No. 4, pp. 852-871.
- Park, Julie and Dowell Myers (2010). “International Mobility in the Post-1965 Immigration Era: Estimates by an Immigrant Generation Cohort Method.” *Demography*. Vol. 47. No. 2, pp. 369-392.
- Park, Kyeyoung (1997). *The Korean American Dream: Immigrants and Small Business in New York Cit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Sakamoto, Arthur, Kimberly A. Goyette and ChangHwan Kim (2009). “The Socioeconomic Attainments of Asian America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53, pp. 255-276.
- Sakamoto, Arthur and Yu Xie (2006). “The Socioeconomic Attainments of Asian Americans.” Pyong Gap Min (ed.). *Asian Americans*. Thousand Oaks, CA: Pine Forge, pp. 54-77.
- Shin, Hyong-jin and Zai Liang (2014). “Ethnic Labor market Contexts and the Earning of Asian Immigrants.” *International Migration*. Vol. 52. No. 2, pp. 140-157.
- Takei, Isao and Arthur Sakamoto (2011). “Poverty Among Asian Americans in the 21st Century.” *Sociological Perspectives*. Vol. 54. No. 2, pp. 251-276.
- Xie, Yu and Kimberly A. Goyette (2004). *Asian Americans: A Demographic Portrait*.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Yoon, In-Jin (1997). *On My Way: Korean Businesses and Race Relations In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Zeng, Zhen and Yu Xie (2004). “Asian-Americans’ Earning Disadvantage

Reexamined: The Role of Place of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9. No. 5, pp. 1075-1108.

Zhou, Min (1997). “Segemented Assimilation: Issues, Controversies, and Recent Research on the New Second Gene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1. No. 4, pp. 975-1008.

## 2. 기타

US Census Bureau (2012). “The Asian Population 2010: 2010 Census Brief.”

| 논문투고일 : 2016년 08월 27일 |

| 논문심사일 : 2016년 11월 18일 |

| 게재확정일 : 2016년 12월 02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3 No. 4 (2016)

## **Socioeconomic Status and Poverty of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Hyun-Song Lee**

(Dept. of English Interpretation & Transl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surveys the socioeconomic status and poverty of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by using the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0-14 dataset. The poverty rate is lower among 2<sup>nd</sup> generation Korean Americans than among Whites. In contrast to either Whites or 2<sup>nd</sup> generation Chinese Americans, more women and those of older than 55 are found poor among 2<sup>nd</sup> generation Koreans. The absolute majority of poor 2<sup>nd</sup> generation Koreans live as never married single.

Poor 2<sup>nd</sup> generation Koreans are much highly educated than are poor Whites, not to mention poor 2<sup>nd</sup> generation Chinese. There are very few poor native Koreans of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 which is contrasted to the one forth of poor Whites being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 In contrast to Whites, much higher proportion of poor 2<sup>nd</sup> generation Koreans are 'working poor.' While income gap is quite large among 1<sup>st</sup> generation Koreans, the gap is much smaller among 2<sup>nd</sup> generation Koreans, which is even smaller compared to the income gap of either Whites or 2<sup>nd</sup> generation Chinese.

A set of logit-regression analyses with chance of poverty as the dependent variable indicate that the odds of being poor is significantly larger among 2<sup>nd</sup> generation Koreans than among either Whites or 2<sup>nd</sup>

generation Chinese. Particularly, the effect of education on lowering the risk of being poor is significantly smaller among 2<sup>nd</sup> generation Koreans than among Whites. It is not certain why American-born Koreans are more likely to be poor than are Whites with identical level of education. The authors suspect that the American society may not discriminate the highly educated 2<sup>nd</sup> generation Koreans, but that it does discriminate the 2<sup>nd</sup> generation Koreans when being lower in education compared to their co-ethnics. The America-born Koreans not commensurate to the image of “model minority” have to struggle under double disadvantages in the American society.

- Key words: Korean American, Asian American, Immigrants, Poverty, Ethnic Town